

특 집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의 서사적 계보 탐색

김영희*

〈국문초록〉

오늘날 젠더 폭력과 규범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는 ‘정상’과 ‘표준’을 구성하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어떤 지점들이 특권화되거나 신화화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리고 이 신화화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행위를 자연화하거나 ‘남성’의 성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곤 한다. 이 신화화 기제의 핵심에 젠더 규범과 정체성 수행의 장소가 되는 담론장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은 이 담론장 가운데 〈용재총화〉와 구술 서사들을 대상으로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의 서사적 계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이야기 구성과 향유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남성’ 주체가 ‘호모소셜(homosocial)’의 경계 내부로 편입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한편, 성적 폭력의 사건들이 일종의 ‘농담’으로 향유되는 장면에서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웃음’의 전략이 ‘남성 섹슈얼리티’의 불안과 동요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살펴보려 한다.

주제어: 남성 섹슈얼리티, 서사적 계보, 호모소셜, 용재총화, 구술 서사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ihumanist@yonsei.ac.kr)

© 201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며

오늘날 ‘남성’이 이른바 ‘가해자’로 지목되는 ‘성적 폭력’의 고발과 폭로 장면에서 빈번하게 목도하는 현실은 이들 ‘가해자’를 ‘다수의 건강한 윤리 의식을 가진 남성’과는 다른 이들로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이들 ‘남성 섹슈얼리티’는 ‘정상’이나 ‘표준’을 벗어난 ‘비정상/비표준’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인식들에서 은연 중에 강조되는 것은 ‘다수의 남성이 여전히 건강하고 상식적이며 윤리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때 ‘정상/표준’의 ‘남성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되며, ‘소수의 문제적 남성이 저지른 폭력(비정상/비표준의 남성성)’은 ‘건강하고 윤리적인 정상의 남성성’을 전혀 위협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재빨리 격리 조치된다.

‘정상/표준’의 ‘남성성’이 자리잡은 지대를 굳건히 지켜내는 또다른 담론 전략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비윤리적이고 문제적인 남성성’이 오늘날에 이르러 ‘극복’되었다는 태도를 통해 구현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오늘’의 ‘남성성’을 ‘문제없는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 ‘과거’의 ‘남성성’을 문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거나 극복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전시(展示)한다. 이런 역사적 입증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호출되는 도식은 ‘전근대/근대’, 혹은 ‘전통/현대’의 분할이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분할은 ‘전근대 사회는 가부장적 유교 사회여서 젠더 규범과 인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근대 이후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식의 통념을 통해 흔하게 발견된다.¹⁾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에 이르러 ‘남성성’, 혹은 ‘남성 섹슈얼리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억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 그러나 사실상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정교화한 것은 근대 이후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근대 이후 섹슈얼리티를 ‘만들어내고 통제하고 배제한’ 권력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푸코, 1990).

이 글은 ‘남성성’, 혹은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와 같은 통념적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남성’으로 정체화된 인물에 의해 자행된 ‘성적 폭력’의 장면에서 이 ‘가해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할 때 이와 같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정당화하는, ‘정상적인 남성 섹슈얼리티’에 내재한 문제는 가려지거나 지워져도 좋은 것일까. 또, 오늘날 ‘남성’이라는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이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담론상의 내용들이 과거의 ‘문제적 지점’에서 획기적으로 나아가 상당한 문제들을 해결, 혹은 극복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일까. 문제적 관념과 태도들이 여전히 지속되는데도 이것이 은폐됨으로써 오히려 더욱 확고해지고, 이 확고해진 담론적 인식들이 ‘비정상/비표준’으로부터 분리된 ‘남성 섹슈얼리티’를 더욱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성적 폭력’에 연관된 모든 사건들이 같은 수준에서 같은 층위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남성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차이와 공간적 차이들을 동질화하거나 무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정상/비정상’의 분할이 ‘정상’의 ‘남성 섹슈얼리티’를 애초에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신화화’된다.

‘남성 섹슈얼리티’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역사적 변화의 추이에 따라 ‘남성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담론 전략과 세부 내용, 젠더 정치 도구와 사회적 기제, 숭한 규범과 제도 등의 측면에서 무수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를 신화화하는 서사적 계보를 추적하려는 것은 ‘지속’의 흔적을 지우고 ‘정상’과 ‘비정상’을 분할함으로써 오히려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해 마땅히 제기되었어야 할 질문들이 계속해서 배제되거나 억압되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일상적 담화의 층위에서 만들어지는 담론과

이 담론을 구성하는 ‘서사(narrative)’들이다. 이 서사들에 투입된 섹슈얼리티의 주요 장면들을 포착함으로써 ‘문제 없는 것’으로 가정된 ‘남성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문제적인지 드러내려는 것이다.²⁾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을 본질화하지 않고 하나의 수행적(performative) 개념으로 인식할 때(버틀러, 2008) 이와 같은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문제적 공간 가운데 하나는 일상 담화의 영역이다. 오늘날 수많은 온라인 담론장이 그러하듯이 시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한 장들이 존재해왔는데 공식적인 담화보다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준공공영역, 비공식적 담화의 층위다.³⁾ 이 글에서 이와 같은 층위의 담론에 천착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구술 서사 연행과 전승의 층위다. 이 담화 층위는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고 효과적인 일상 정치의 장으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통 사회의 특수 계층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담론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상적 담론장이 구술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서술 목적은 ‘남성’ 섹슈얼리티를 신화화하는 담론 전략들이 특정 시기, 특정 계층, 특정 매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그 역사 또한 오래된 것임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여기서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화의 계보를 추적하는 것은 그 계보를 완성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의 자취를 추적하여 계보 자체를 탐구축하는 것을 목

2) 특히 이와 같은 서사에 내재한 관념들이 오늘날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적 담론장에서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또한 이 글의 서술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준공공영역’은 ‘공공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영역’으로서, ‘회식이나 술자리’, ‘가정에서 아이와 부모,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얘기’의 층위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유언비어 등이 유포되고 공유되는 일상적 정치 담론 영역으로 기능하면서 공식적인 담화 층위보다 더 큰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윤해동은 이를 ‘지배적인 공공성의 담론을 수면 아래로 잠복시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장’으로 기술하였다(뤼트케, 2002; 윤해동, 2010).

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세기 들어 구술 녹취된 서사들뿐 아니라 15~16세기에 성현(成俔, 1439~1504)이 저술한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수록된 서사들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는 당대의 풍속과 종교, 사대부가 중심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알려진 일화, 왕실과 가문을 둘러싼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된 패설집(稗說集)이다.⁴⁾ 고려 후기 이재현(〈櫟翁稗說〉), 최자(〈補閑集〉), 이인로(〈破閑集〉), 이규보(〈東國李相國集〉) 등 여러 문인들의 뒤를 이어 조선시대에도 사대부 문인들이 다양한 패설집을 남겼는데, 이들 책에는 남성 사대부들 사이에 주고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성적(性的)인 이야기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런 류의 책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어면순(禦眠楯)>, <속어면순(續禦眠楯)>, <태평한화滑稽傳(太平閑話滑稽傳)> 등이 있는데 비교적 이런 성격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용재총화>의 경우에도 성적(性的) 이슈에 관한 다수의 서사가 수록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이 <용재총화>를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어면순>류의 책들에 비해 <용재총화>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고전 패설집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문학사 연구나 문학교육 영역에서 정전(canon)으로 고려되는 책들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 풍속 교화의 성격이 강한 고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분리, 다시 말해서 성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과 그렇지

4) <용재총화(慵齋叢話)>의 성격과 특징,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선행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까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다. 또한 저자 성현의 가문이나 『악학궤범(樂學軌範)』 등 그의 다른 저술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재론하지 않으려 한다. 이 글에서는 <용재총화>가 이제까지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적' 텍스트가 아니라 정상과 표준 범주 내의 '고전적' 텍스트로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이유로 이들 정상 범주 내의 '남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용재총화> 수록 서사 분석을 통해 수행하려는 것이다.

않은 책 사이의 분리가 <용재총화>에 수록된 이야기를 '정상/표준 남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으로 인식케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조선 중기 여러 패설집들을 제쳐 두고 <용재총화> 소재 이야기들에 주목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용재총화>는 처음 발간된 당시 '남성' 사대부들끼리 향유하던 텍스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서술 의도와 동기, 서술 태도에는 조선 중기 '남성' 사대부 집단의 '호모소셜(homosocial)'⁵⁾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들이 숨어 있다. 이 또한 <용재총화>를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삼은 이유다. 이 글에서는 <용재총화> 소재 이야기와 구술 연행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려 하는데 이들 이야기가 각각 기록과 구술의 매체 층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선 중기 사대부와 20세기 서민 남성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와 계층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역량에 관한 신화적 관념들이 다른 시기, 다른 매체, 다른 호모소셜 내부에서 소통되던 서사들 안에서도 발견되는 관념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뿐이다.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의 탈신화화와 서사적 계보의 탈구축을 위해 일종의 시론적 제안으로서, 계보학적 관점에서 이들 텍스트를 비평하려는 것이다.⁵⁾

이 글의 서술 목적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글에서 다루는 서사에 등장하는 성적(性的) 사건들이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정상적인 남성 섹슈얼리티'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다루게 될 구술 서사 대부분은 그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나 연행자들 사이에서 '민중(남성으로만 대표된)'의 건강하고 발랄할 성 관념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5) 이 글에서 서사적 계보라는 말의 의미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화가 구축된 모든 역사적 과정을 탐색하고 논증한다는 뜻을 갖기보다는 계보학적 탐색의 관점과 방법을 차용한다는 뜻을 갖는다. 여기서 '용재총화'는 책명이기보다는 작품명으로 쓰이기에 『용재총화』로 표기하지 않고 <용재총화>로 표기한다.

이자 '웃자고 즐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인식되어 왔으며, 〈용재총화〉 역시 조선 중기의 풍속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고전 텍스트로 인식되어 왔다. 이 점에서 이들 이야기에 등장한 성적(性的) 사건들의 서술 태도와 방식, 그리고 이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호모소셜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텍스트에 내재한 섹슈얼리티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준공공영역의 일상 담화 층위에서, 혹은 일상적인 기록 텍스트들에서 '남성'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어왔는지 탐색해 보려 한다. 이 글은 '성적 농담'을 즐겁게, 때론 과시적으로 공유하는 호모소셜 커뮤니티 내의 담론장에 참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기술하지 않더라도 참여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수행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⁶⁾ 그리고 이들 텍스트에 등장하는 '남성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연화하고 남성의 성적 폭력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고 점유하는 행위자(agent)로 등장한다.

6) 이 글에서 섹슈얼리티는 담론을 통해 구성되고 발견되는 것이며, 사회적 행위자(agent)들 사이의 역동을 통해 작동하고 권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푸코, 1990). 사실상 모든 섹스(sex)는 사회적으로 기술되고 재배치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가시화되므로 섹스와 젠더(gender)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버틀러는 말한다(버틀러, 2003).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재기술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굳이 섹슈얼리티를 구분해 말하려는 것은 젠더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몸의 영역(페니스 등), 성애적 욕망과 행위들, 성적 지향과 이를 가로지르는 문화적/개인적 차이들, 성적 욕망과 행위의 물질적 측면들, 성적 욕망과 행위의 구체적 장면들,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기제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다.

2. 구술 서사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화화 양상

구술 서사에서 ‘남성’ 섹슈얼리티가 구현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야기 유형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신립 장군과 원귀’ 유형의 이야기와 ‘상사뱀’ 유형 이야기가 있다.⁷⁾ 전자는 함께 살기를 원하는 여성의 제안을 거절한 신립 장군이 원귀가 된 여성의 이적(利敵) 행위로 패전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이야기(632-8-(9), 642-2-(1), 642-2-(2), 642-2-(6), 642-2-(9), 642-2-(10), 642-2-(11), 642-2-(12), 642-2-(13), 642-2-(14), 642-2-(15), 642-2-(16)(이인경, 2008)⁸⁾)이며, 후자는 ‘어여쁜 처녀’를 짝사랑한 총각이 홀로 사랑하다 상사병에 걸려 죽은 후 뱀으로 환생한 다음 처녀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처녀가 죽고 마는 내용의 이야기(642-4-(1))다.

이들 이야기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여성’ 섹슈얼리티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데 전자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위기, 다시 말해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남성’ 섹슈얼리티의 지배와 통제 바깥에 배치했을 때 발생하는 ‘남성’ 주체의 위기를 ‘원귀의 복수’와 ‘남성의 죽음’을 통해 그려냈다는 점에서 ‘남성’ 섹슈얼리티에 내재한 신경증을 암시한다. 후자는 절제되거나 조절되지 못한, 다시 말해 규율 권력을 벗어난 ‘남성’ 섹슈얼리티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단계를

7) 이 글에서는 유형별 이야기를 통해 구술서사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 양상을 개괄하고 이야기관 중심의 자료들을 통해 호모소셜 중심의 이야기 항유 양상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가려 한다. 전자의 유형별 이야기는 전국의 구술서사 자료를 정리한 『한국구비문학대계』(1979~1988) 소재 자료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이인경의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소재 설화 해제』(2008)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하 유형별 자료의 번호는 이인경(2008)의 해제 번호를 인용한 것이다.

8) 이하 이인경(2008) 자료 인용 동일. 별도 표시하지 않음.

‘상사뱀’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다른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경증을 보여준다. 전자에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경증을 유발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여성’ 섹슈얼리티로 지목된다면 후자에서는 ‘남성’ 섹슈얼리티를 통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여성’의 치명적 매력(‘어여쁜 처녀’)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여성’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⁹⁾

그러나 ‘남성’ 섹슈얼리티에 주목할 때 두 이야기에서 모두 강조되는 것은 ‘여성’ 섹슈얼리티를 적절히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역능’과 규범화된 기준선을 넘어버린 ‘남성’ 섹슈얼리티의 ‘과잉’이다. 반대로 ‘여성’ 섹슈얼리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배한 ‘남성’ 섹슈얼리티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부귀공명을 누리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혹하는 과부나 처녀를 물리쳐 과거에 급제하거나 부귀공명을 누리게 된 ‘남성’들의 이야기도 다수 존재한다(412-9-(1), 412-9-(2)).¹⁰⁾ 또 전시되거나 과시된 ‘남성’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 ‘남성’ 섹슈얼리티가 성공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는 이야기들도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기개나 기지, ‘남성적’인 외모와 힘의 과시 등을 보고 곧바로 ‘남성’과 혼인하거나 잠자리에 드는 처녀나 과부, 기생들의 이야기가 다수 전승된다(711-7 유형

9)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달래나 보지’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누이와 길을 가던 남동생이 비가 와서 온통 젖는 바람에 실루엣이 드러난 누이의 몸을 보고 발기한 자신의 성기를 훼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410-10; 이인경, 2008). 이 이야기는 ‘남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신경증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희, 2013).

10) 젠더 경계 내부의 ‘남성’ 섹슈얼리티는 언제든지 이성애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은 어느 이야기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강조된다. 특히 ‘과부’나 ‘홀아버’가 치명적 결핍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고 이들에게 이성애 성애의 대상을 찾아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나 효의 실천, 혹은 이타적 행위인 것으로 그려지는 다수의 이야기들이 존재한다(435-6 유형 전체, 711-1 유형 대부분; 이인경, 2008).

대부분, 특히 711-7-(2), 711-7-(12), 711-7-(13), 711-7-(14), 711-7-(15), 711-7-(17)).¹¹⁾

경계를 벗어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다수의 이야기에서 심각하지 않게, '성적인 농담'의 형태로 연행·전승된다. 특히 어린 신랑, 바보 신랑, 장님, 중 등의 이야기에서 이들이 성적 행위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들의 성적 욕망이 과잉, 혹은 결핍되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바람에 조롱의 대상이 되는 내용의 유형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적 무능'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돈 앞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어린 삼촌(243-1-(10))이나 아들의 성기에 실을 묶어 신호를 보낸 어머니 때문에 맞선자리에서 실수를 거듭한 바보 아들(243-4-(8)) 등의 이야기가 있다.

대다수 이야기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규범화된 경계 안으로 배치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신화적으로 상징화된 '남성' 페니스의 역능이 성적 행위 없이 세상의 질서를 바꿀 중요한 존재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이야기들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범일 국사나 도선의 탄생담, 혹은 견훤의 출생담에서 '여성'은 물에 떠내려온 오이(참외, 복숭아, 별, 달, 해, 뱀장어)를 먹거나, 뱀장어(대추)나 지렁이가 그 '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후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132-2-(1), 132-(2), 432-7-(4)). 그 밖에 삼대독자가 죽은 후 대가 끊긴 집안에서 죽은 독자가 묻힌 땅 위에 오줌을 눈 여인이 후손을 잉태하는 이야기도 있다(633-7).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 중에는 성적 폭력을 당한 '여성'이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유형의 각편들도 존재한다(436-1-(1), 436-1-(2)). 이들 이야기에서는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보다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아들의

11) 711-7 유형 이야기 중에는 '남성'의 학문적 재능이나 글쓰기 능력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를 성취하는 요인이 되는 작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또, '남성'의 기지와 재치로 '여성'을 성애적 대상으로 획득하는 이야기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패턴의 '남성' 섹슈얼리티를 구현한다(715-4-(1), 732-2-(1): 이인경, 2008).

‘남다름’이 초점화되기도 한다.¹²⁾

이들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남성’ 페니스(penis)의 절대적인 힘이다. 신화적으로 상징화되어 있긴 하지만 신화적 맥락을 소거하고 보면¹³⁾ 재생산의 문제는 물론, ‘남성’ 정치 권력의 성취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페니스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절대적 권위와 역량을 보여준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남성’ 섹슈얼리티가 극단적으로 신화화된다. 또한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여성’의 내면은 전혀 초점화되지 않으며, ‘여성’은 행위 주체가 되거나 행위 동기를 갖지 못한 채 오직 ‘대상’으로만 드러난다.

‘여성’ 섹슈얼리티가 극단적으로 대상화되는 사례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 ‘남성’ 섹슈얼리티의 ‘뛰어난 역능’으로 정당화되는 이야기들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¹⁴⁾ 다음에서 살펴볼 이야기들에서 이와

12) 조금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남성’ 섹슈얼리티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이야기들 중에 자위를 한 뒤 정액을 벽에 뿌린 남성이 왕의 눈에 들어 과거 급제하는 이야기(311-1-(5)), 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에 합격한 후 구미호를 잡아 나라를 구한 선비의 이야기(311-1-(14)), ‘씨를 받으려는’ 여성과 하룻밤 잠자리를 함께 한 후 과거 급제한 중국 사람 서상철의 이야기(414-4-(2)), 빨래하던 아낙네에게 갑자기 다가가 포옹을 하고 많은 재산을 얻은 노인의 이야기(414-5-(22)) 등이 있다.

13) 이런 유형의 구술서사 분석에서는 젠더 비평의 단계에서도 신화 비평의 층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신화적 상징의 해석이 젠더 비평의 해석틀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재맥락화되는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핵심 논지를 좀더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음 기회로 미룬다.

14) 아래 예로 든 이야기들 외에도 ‘여성’을 거짓으로 속여 신분이 높거나 부자인 ‘여성’을 취한 신분 낮은 남성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 이야기에서 ‘여성’은 교환되는 대상으로 그려지며 교환은 ‘여성’의 부모와 ‘남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예로, 거짓으로 정승을 겁박하여 그 딸을 강제로 취한 신분 낮은 노총각의 이야기(333-2-(2); 이인경, 2008), 부모를 거짓으로 속여 게으르고 친한 신분의 총각이 부잣집 딸을 얻은 이야기(333-3-(3); 이인경, 2008), 처녀가 오줌 준 자리에 새의 깃털을 꽂아둔 후 걸을 때마다 새 울음소리가 나는 처녀의 병을 고쳐 처녀를 얻은 가난하고 게으른 총각 이야기(333-2-(4); 이

같은 양상이 잘 드러나는데, ‘혼자 있는 처녀의 ‘처녀성’을 강제로 빼앗고 병을 고쳐준 것으로 둘러댄 소금장수’의 이야기(333-2-(1)), 과부의 친절을 빌미 삼아 첫날밤 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여 부자 과부를 아내로 얻은 노총각의 이야기(333-3-(1)), 과부를 속여 거둬진 신체 접촉을 한 후 이를 통해 과부와 그의 재산을 얻은 머슴의 이야기(333-3-(2))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연행·전승되는 남성 동성 집단의 이야기판이다. 특히 이와 같은 이야기판에서 연행 레퍼토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연행 발화를 통해 연행자들이 이야기 속 성적(性的) 사건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드러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남성 동성 집단의 연행 사례로 전남 신안군에서 1984년에 조사된 이야기판에 주목하려 한다. 『대계』에 소개된 해당 자료는 ‘남성’ 연구자가 조사한 연행 자료로, 14대째 거주하는 토박이 남성 이야기꾼 정기동(당시 64세)씨가 연행을 주도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남성들이 참여한 연행 현장을 조사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자의 기술에 따르면 정기동씨는 한학을 배운 적이 있고 마을 남성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장사꾼이었다. 조사자의 기술내용에 따르면 그는 ‘해학성 짙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장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연행했는데 입담이 좋아 청중이 열심히 들었고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구연했다고 한다(『대계』 6-7: 22). 정기동씨는 “인자 좀 상스런 이야기 할라잉.”(『대계』 6-7: 103)이라는 말로 <서로치기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 연행을 시작한 후 잇달아 성적(性的) 사건을 다룬 이야기들을 차례로 여러 편 연행하였다. 조사자의 기술 내용과 자료를 통해 연행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때¹⁵⁾ 아래

인경, 2008) 등이 있다.

15) 조사자는 아래 정리한 ‘소금장수’ 이야기에 대해 “도서지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금장수 이야기”(『대계』 6-7: 111)라고 언급하였다. 또 조사자 본인이 연행자에 대해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직접 이야기를 청했다고 기술하였다.

이야기는 모두 ‘남성’들이 모여있는 동성 집단 내에서 시종일관 흥겨운 분위기 속에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서로치기보다 더 좋은 것〉¹⁶⁾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 6-7, 모두 동일 책자 수록)

1. ‘청춘과부’가 된 여인이 재산을 지키려고 혼자 살면서 멍청한 머슴을 들었다.
2. 어느날 중이 찾아와 하루밤 재워달라 청하여 머슴방에서 같이 자게 해 주었다.
3. 중이 밤에 머슴을 깨워 ‘서로치기’를 하자 하였다.
4. 머슴이 ‘서로치기’를 모른다 하자 ‘항문 성교’를 하며 ‘서로치기’를 가르쳐주었는데 중이 밤새 여러 번 이를 시도하였다.
5. 어느날 지나가던 늙은 여성 노인이 하루밤 재워 달라며 이 집을 찾아오자 주인이 ‘멍청한 머슴’의 방에서 자고 가라 하였다.
6. 머슴이 여성에게 ‘서로치기’를 시도한 후 여성에게도 “한나 주시오.”라고 말하며 엎드렸다.
7. 여성이 시도하지 않자(“여자가 뭐 있어야제.”) 머슴이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시도하였다.
8. 머슴이 ‘서로치기’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 주인 여성에게도 시도하였는데 주인 여성도 그 즐거움을 알게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

(가) 이야기를 연행하면서 연행자는 다음과 같은 발화로 사건을 묘사하였다.

‘주인네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거 심심풀이하자 해야 쓰겠다.’ 하고 인자 안방으로 건너갔어. 문을 열고 건너간게 문을 잠가놓고 있거든. 인

16) 아래 서사단락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과 비평을 위해 본 연구자가 『대계』에 기술된 원 구술 녹취 전사 자료를 재정리한 것이다(이하 서사단락 정리 방식 동일).

자 문 좀 끄르라근께 누구냐 근께 나라고 그라거든. 그래 즈그 머슴인
 께 뭐 급한 일이 있는고 하고 도둑이나 들었는가 하는 식으로 문을 끌
 러줬단 말이여. 뭘 일이나 그란께 들어가서 '서로치기 하자' 그러거든.
 '뭘 소리를 하냐고, '나 못한다'고, 그란께 아따 참 아주머니는 맛을 몰
 라서 그란다고 참 좋은 것이라고 인자 여자 얹어놓고는 인자 똥구녁
 으로 한 것이여. 모른께, 그것밖에 모른께, 그라고 인자 자기 흥분이
 끝난께 지가 또 옆집스러 해보라 그라거든. 할 질을 알아야제. 아 그래
 난중에는 여자가 자연히 흥분이 생긴다 그것이여. 허나 죽것은께 괜히
 당신은 그것만 누한테 배웠는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니 앞으로 달랑 누면서 여그다 하면 더 좋다고. 아 대체
 거그를 하면 더 좋그던. 아 그래 인자 저녁마다 댕긴 것이여, 저녁마
 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살어부렀어(『대계』 6-7:
 105).

(나) <장가가는 것 모른다면서 부자 과부 얻은 총각>

1. 홀아버가 된 아들이 장가 보내기 위해 피를 낸 노인이 아들에게 이
 옷집 부자 과부에게 가서 그를 '얼르라'고 말했다.
2. 아들이 그 방법을 묻자 아버가 도망간 것처럼 숨어있다가 본인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겠다고 말했다.
3. 아버가 아들에게 과부가 연유를 묻거든 '장가 드는 법도 모르는데
 장가 가라고 해서 쫓겨다니는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말했다.
4. 과부가 아들에게 '장가는 좋은 것'이라고 타이르자 아들이 그 방법
 을 알려 달라 하였다.
5. 과부가 그 방법을 알려주려 하자 아들이 과부에게 신체 접촉을 반
 복하다 같이 살게 되었다.

(나) 이야기의 연행 과정에서 연행자는 다음과 같은 발화로 사건을 묘
 사하였다.

대고 올라오라 해서 인자 엉뚱하게 육에다 자지를 놓고 문댄다 치면,

‘아이 그 밑이다’ 그러머는 너무 밑으로 갔다가 아이 올라오란다 치면 배꼽 있는 데로 왔다가 이 지랄을 한디 여자를 흥분시킨 것이여, 말하자면. 그래 인자 난중에 여자가 인자 흥분이 잔뜩 되게 막 인자 억지로 잡아다가 인자 자기 자궁에다 여갓고는 성생활 했어. 그러고는 낮에 인제 그날 저녁에는 참 몇 번을 그렇게 했든가 몰라도 날이 샌께, 이렇게 한 것이 장개간 것이라고 가라고. 그런께, ‘한 번 갖으면 말제 두 번 또 간다냐’고, 아 거그서 비빔고 안 가거든? 가면 몽당이 맞은께 안 간다고. 어 날마다 거그거 해준 밥 묵고 어짜고 살다본께는 여자가 정이 든께, ‘에이 그러면 같이 살자’ 그래갓고 그 살림 먹어볼고 그런 일이 었다 그 말이(『대계』 6-7: 107-108).

(다) 〈간교한 소금장수〉

1. 지나가다 소금장수를 만난 부인이 자신의 집에는 ‘큰애기’만 혼자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말하자 소금장수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그 집이 어디인지 물었다.
2. 딸의 이름까지 알아둔 소금장수가 그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외삼촌이라고 속이고 차려준 저녁상을 받았다.
3. 소금장수가 ‘시집 갈 때가 되었는데 시집을 못 가서 고름이 많이 들었다’고 말하고 죽을지도 모르니 자신이 그 고름을 빼주겠다고 말했다.
4. ‘처녀’가 시키는 대로 요를 깔고 훌치마만 입고 속옷을 벗은 채 늙자 소금장수가 삽입을 하고 흘러나온 질액을 그릇에 담았다.
5. 성적 흥분을 경험한 ‘처녀’가 능동적으로 응해 밤새도록 삽입 성행위를 하였다.
6. 다음날 이웃 할머니가 와서 그릇에 담긴 것을 죽인 줄 알고 먹었다.
7. ‘처녀’가 소금장수가 달라는 대로 베와 쌀과 돈을 내주자 소금장수가 그것을 들고 가버렸다.
8. 돌아와 자초지종을 듣게 된 어머니가 ‘멍청한 년’이라며 딸을 욕하며 꾸짖었다.

(다) 이야기를 연행하면서 연행자는 성행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

다.17)

이놈이 생전 맛을 못 본 큰애기한테다가 인자 서로 인자 부부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여. 그래 인자 이놈이 지가 인자 흥분을 빼갓고는 그 인자 음양몰이 나온께 그릇에 다 받아. '봐라. 고름이 이리 많이 안 찾나?' 그란디 고름 빼케 시원하니 좋거든 여자가. 그래 인자 큰애기가 그래 인자 자다가 또 생각난다치머는 고름 좀 더 빼자. 밤새도록 이놈이 그 큰애기를 찢자를 쳐부렸어. 그래 인자 이런 그릇에다 놓고 나온 다치머는 담고 담고 한 것이 술찬히 받아들였는디, 그놈 문 뒤에다 나 돈는디 옛날에는 이 성냥도 없고 해서 인자 그 불텐 집이 불 싸로 많이 댕겼거든. 그 웬 윗집(이웃집) 늙은이 하나가 불 싸로 온다고 정제 밤 한 데로 불싸로 오더니 빛을 소중에다 뭐 흰죽을 써냈거든.

(라) <재미 본 소금장수>

1. 총각 하나가 소금장수들을 따라나섰다가 한 과부집에 머물게 되었다.
2. 과부의 신발과 자신의 신발을 바꿔 놓고 자는데 과부를 찾아온 중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3. 찾아온 중이 문틈으로 입에다 키스를 하자고 말하자 남자가 몸이 안 좋아 입에서 냄새가 난다며 똥구멍을 대주었다.
4. 중이 문틈으로 발기한 성기를 들이밀며 주물러달라고 말하자 남자가 칼로 성기를 잘라 주머니에 담았다.
5. 남자가 과부의 방에 들어가 밤새 성행위를 한 후 과부가 자신이 만나던 남자가 아님을 알고 당황하였다.
6. 과부가 동네에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여 남자에게 배와 돈을 내주었다.
7. 남자가 다른 소금장수들이 자신을 따돌린 것에 부아가 나서 이들을 골탕먹이려 하였다.
8. 소금장수들이 머물던 주막이 제삿날이었는데 자신이 제사상의 음

17) 김시연은 이 유형 이야기를 '처녀 병 고친 소금장수'로 명명하고 이 유형 이야기에 나타난 '남성 페니스의 절대화와 신화화'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김시연, 2019).

식을 훔쳐먹고 잠든 다른 소금장수들이 먹은 것처럼 그들의 입 주변에 떡고물을 문혀 놓았다.

9. 주인이 두 사람이 음식을 훔쳐먹었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두들겨팼다.
10. 아파서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좋은 약이 있다며 잘라 보관하던 성기를 꺼내 잘근잘근 씹어보라 하였다.
11.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문 밖에 버렸는데 지나가던 중이 보고 자신을 해친 이들이라 여겨 이들에게 복수를 하였다.¹⁸⁾

(마) 〈발가벗고 자는 영리한 머슴〉

1. 돈 많은 과부의 재산을 노린 영리한 머슴이 과부에게 가서 새경없이 일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과부가 이를 승낙하였다.
2. 머슴은 새경없이 일하는 대신 밤새 불을 켜놓고 자게 해달라 하고는 밤마다 발가벗고 잤는데 과부가 구멍을 뚫어 몰래 들여다보니 머슴의 성기가 발기하여 꼳꼳하게 서 있었다.
3. 과부가 참다 못해 훔치마만 입고 들어가 삼입하여 성적 흥분을 경험한 후 밤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4. 머슴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성적 흥분을 경험하였다.
5. 머슴이 어느날 깨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꼽 우에가 코가 내려지고 똥 코가 이랬는고 했더니 이렇게 혼자만 재미봤구나.”라고 말하고 이후 함께 살게 되었다.

(라) 이야기의 연행 상황에 대해 조사자는 “호색 설화답게 흥미와 쾌락이 있어 좌중에서는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정기동씨는 이 이야기 연행 후에도 유사한 패턴의 성적(性的) 이야기를 5편 더 연행하였다. 조사자는 〈처녀 병 고쳐준 총각〉의 연행 상황에 관한 기술 항목에서도 “호색설화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풍자와 해학이 풍부하며 구연력이 훌륭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 이야기 역시 ‘처녀’를 속여 그를

18) 연행자는 이야기를 끝내며 호탕하게 웃은 후 “사람이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대계』 6-7: 116).

강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행자는 그 핵심 장면을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였다.

거그다 쑥 쑤서 옳다 그 말이여. 쑥 쑤여 여분께 금이 금이 더 들어가 분께 아이 너무 들어갔다 쑥 뻘게 더 나와볼그든. ‘아이, 너무 나와 부렀단께’ 쑥 쑤신께 더 들어갔다 덜 나왔다 해갖고는 왔다갔다. (청중 웃음) 왔다갔다 그란께 인자 가시네는 처음 본 맛에 인자 아픈 데는 없어지고 인자 갠질갠질 좋크든. 그란께 아 더 들어가니 덜 들어가니, 내중에 가서 뭐시라 하니, 즈그 아부지가 있다가, ‘그것이 약 약이 아니라 순 썸이다. 순 썸.’ 그리고 ‘가세’ 그라고 방을 나와부렀다고(『대계』 6-7, 123쪽).

현지조사에 참여한 조사자가 ‘풍자’와 ‘해학’으로 설명한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모두 ‘성적 폭력’에 관한 장면들이었다. 사실상 이들 이야기 연행의 핵심에는 ‘성적 폭력의 전시(展示)’가 놓여 있다. 남성 동성 집단 내에서 성적 폭력이 구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장면화됨으로써, 연행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보면서 즐기는 자’로서 이 폭력의 장면에 동참하게 된다. 연행 상황에 대한 기술 내용을 참조할 때 조사자를 포함하여 동석한 남성들은 시종일관 이야기를 즐겁게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연행을 이어나갔으며 이야기 기관의 분위기 역시 매우 고조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행 장면 기술에서 주목해 볼 것은 동석한 ‘남성’들이 ‘예외없이’ 모두 이야기를 즐겁게 즐겼다는 사실이다. 성적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농담처럼 즐기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주도하거나 덧붙이지 않더라도 함께 이 ‘웃음’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집단 연행의 코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거부감없이 ‘웃음’과 ‘즐김’에 동참하는 것이 이 이야기 연행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공유되어야 할 문화적 소통 코드이기 때문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한 삽입 행위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질액이 물질적으로 가시화되며 강조된다. '남성'의 성기는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일깨워 극도의 흥분을 경험하게 하고, '질병'으로 비유된 '처녀'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역능을 지닌 것으로 강조된다. 장면화 과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강조된 것 역시 발기한 '남성' 페니스와 '여성'의 질에 이 발기한 페니스가 꽂히는 장면이다. 여기서 함께 부각되는 '여성'의 질액은 '여성'의 흥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동시에 성적 행위에 대한 '여성'의 사후적 동의처럼 그려진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지만 '여성'도 만족했으며 이 만족을 통해 '여성'에게도 좋은 일이었다는 사후적 정당화가 성립되는 것이다.

앞서 기술된 이야기들에서 '여성'의 내면, 특히 동기나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은 이성애적 성애의 대상으로 그려질 뿐이며 무엇보다 '여성'은 '남성' 섹슈얼리티의 성애적 대상으로서의 '몸', 특히 그 중에서도 삽입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을 중심으로 치환되어 있다. 이야기 속에서 모든 성적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지만 이 과정은 모두 억압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일깨워 새로운 환희를 맛보게 한 여정으로 미화된다. '여성'은 질액을 통해 암묵적 동의, 성적 흥분, 각성된 성욕 등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가정되며, 질액이 등장한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삽입 위주의 성행위에 스스로 나서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소금장수' 이야기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소금장수'의 페니스가 성에 무지한 '큰애기'의 '병을 고친 것'으로 구술되기도 한다. 이야기를 통해 이와 같은 성적 폭력은 전혀 폭력이 아닌 것으로 서술된다. '소금장수' 이야기에서 '여성'의 어머니는 폭력을 자행한 '소금장수'보다 폭력을 당한 자신의 딸을 '멍청하다'며 질책한다. 그리고 이야기 속 어머니와 딸은 이미 일어난 '성적 폭력'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이들 이야기 대부분에서 성적 폭력은 관계의 지속으

로 이어지며 이 관계는 '정상적인 이성애 부부의 성애'로 그려진다.

성행위 장면에서 남성의 성기와 삽입, 여성의 질액 등이 강조되는 것은 웹소설이나 웹툰 등 오늘날 대중적인 통속 서사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클리셰다. 오늘날까지 남성과 여성 중심의 이성애적 성애와 성행위 관련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섹슈얼리티 관련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서사에서 '여성'의 몸은 강제적인 성행위를 통해 성적 행위와 쾌감에 눈뜨는 것으로 그려지며 이 과정은 문제의 해결이나 로맨스의 무르익음으로 설명된다. '여성'의 몸은 '남성' 섹슈얼리티의 성애적 대상이 되는 가슴, 성기 등 특수 부위를 중심으로만 부각되며 이때 '여성'은 이 부각된 몇몇의 신체 이미지로 치환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폭력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모든 힘의 원천은 '남성'의 페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진다. 성적 폭력에 기인한 고통은 곧 성적 쾌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여성'의 질액인 것처럼 묘사된다. '소금장수' 이야기에서 더욱 문제적인 장면은 성적 행위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상태가 일종의 '질병'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 병은 '남성' 페니스의 삽입으로 치료되며 '여성'의 질액은 이 치료를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물이 된다.

물론 이들 이야기에서 '남성' 페니스의 상징은 신화적 표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구술 서사의 전통에서 '소금장수'는 '남성성'이 강한 트릭스터(trickster)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화와 주술의 맥락에서 소금장수의 행위는 신성혼의 흔적을 간직한 생식과 생산에 대한 신화적 메타포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이때 페니스는 우주적 에너지를 상징하거나 생산에 관한 주술적 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구술 서사가 연행 및 전승의 과정에서 적층(積層)의 시간성을 텍스트 안에 새겨 넣어 구술 텍스트가 여러 겹의 의미망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의미망의 형성 과정에서 구술 연행에 참여한 이들은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하게 되며,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 다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연행할 때 이 해석의 관점은 새로운 각편의 형성에 개입하며 이야기의 문맥을 미세하게 변화시킨다. 따라서 신화적 상징의 의미망은 신화적 해석의 층위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하는 구술 텍스트의 적층적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구술 서사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신화적 층위에서만 해석될 수 없으며, 적층의 시간성이 만들어낸 텍스트의 다양한 겹에 대한 해석이 신화적 해석에 뒤따라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젠더비평의 소환 가능성, 혹은 필요성이 열린다. 젠더비평의 관점을 누락한 채 신화 표상의 해석에만 매달릴 때 ‘남성’ 페니스의 신화적 서사들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연화하고 ‘남성’에 의한 성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젠더 정치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앞서 언급한 구술서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은 신화적 해석의 층위에 머물거나 혹은 이를 ‘민중성’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태도에 기울어져 있었다.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에 등장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이를 발랄하고 건강한 ‘민중성’의 구현으로 해석하면서 ‘풍자’와 ‘해학’의 ‘민중’ 미학적 관점에서 비평하려는 태도가 주류적 경향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중’은 곧잘 ‘남성’으로 치환되며 가장 ‘민중적인 신체’는 노동의 근육으로 다져진 ‘남성적인 신체’로, ‘위선적이지 않고 솔직하며 건강한 민중적인 삶’의 태도는 성적 본능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이것의 실현을 향해 돌진하는 ‘남성 섹슈얼리티’로 해석하려는 관습적 태도가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구술 서사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그간 해석의 주류를 이루어온 ‘신화 비평’과 ‘민중 담론’의 해석적 틀을 젠더비평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재기술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용재총화(慵齋叢話)>에 기술된 ‘남성’ 섹슈얼리티의 사건들

<용재총화>를 쓴 것으로 알려진 성현(成俔, 1439~1504)은 1496년에 쓴 <촌중비어(村中鄙語)>의 자서(自序)에서 자신이 이와 같은 부류의 이른바 ‘잡문(雜文)’을 써서 책으로 엮은 이유에 대해, ‘경전’이나 ‘역사’만이 아니라 다른 ‘맛’을 드러내는 글도 읽을 필요가 있고 이런 글들이 괴이하긴 하나 견문을 넓히고 역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⁹⁾ 또한 그는 이런 글이 악을 경계하고 징계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노년에 감상하고 한가로운 때에 즐길 만한 거리가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2001: 99~101). <용재총화>는 성현과 가까운 이들은 물론, 후대 사대부들도 간간이 찾아 읽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17세기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峯類說)> 자서(自序)에서 <용재총화>를 <보한집>, <역옹패설>, <필원잡기> 등과 함께 언급하며 ‘박학(博學)의 자료로 삼고 옛 사실을 고증하기 위해’ 읽을 필요가 있는 글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2001: 128).

그러나 권계(勸誡)에 도움이 되고 박학(博學)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일 뿐 수록된 이야기들의 성격은 사대부 남성들이 소일거리 삼아 돌려 읽어볼 만한 자질구레한 일상적 소화들과 신변잡기적

19)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왕과 사대부 관료들의 일화, 집쟁이나 승려, 배우 등 여러 하층 계급 인물들에 얽힌 이야기, 풍속을 소개하는 글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당파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드러내며 관련 인물들의 일화를 기술하였다. 성현은 여러 왕에 걸쳐 수많은 관직을 거쳤는데, 예조판서의 증손이자 참관의 아들이었으며 우의정의 조카이자 좌참관의 아우였다. 대대로 문장이 뛰어난 집안에서 태어나 23세에 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여 승지, 대사간, 대사성 등의 요직을 거치고 예조판서와 한성판윤, 대제학 등의 직책을 두루 섭렵하였다(용재총화: 301). 한 마디로 조선 중기 정치적 입지가 굳건한 별얼 가문의 일원이 바로 성현인 것이다.

일화들, 불교와 무교, 세시풍속에 대한 풍속들, 왕실과 사대부가(士大夫家) 인물들에 대한 가십류의 정보들, 성적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중에는 '남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글들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글에서 강조된 '남성' 섹슈얼리티의 경계는 '기녀', '여승', '과부', '사대부가 여성'과 같은 '여성'뿐 아니라 '변방의 이족(異族)과 야인(野人)', '노인', '무성욕자나 성에 무지한 남성', '중', '내시', '기개가 없고 용졸한 남자' 등을 외부로 삼아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일종의 '비(非)-남성(not-male)'으로서 조선 중기 사대부 집단 내에서 규정된 '정상'이자 '표준'의 '남성' 섹슈얼리티를 기술하기 위해 배제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사대부 남성 집단이라는 호모소셜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일종의 '구성적 외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버틀러, 2003; 조현준, 2007; 아감벤, 2008; 임옥희, 2006).²⁰⁾

〈용재총화〉에서 이 외부로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여성'이었다. 〈용재총화〉는 15~16세기 조선 사대부 남성의 호모소셜이 '여성'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분할적으로 규범화하여 통제하려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글에 등장하는 '여성'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주로 '왕가나 사대부가의 규방 여인', '기녀', '과부', '여승'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분은 때때로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젊은 몸'과 '늙은 몸'으로 다시 분할되며 분할된 '여성' 섹슈얼리티에 따라 요구되는 젠더 규범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령 윤씨'의 이야기에서 사대부가의 혼례를 치르지 않은 젊은 여성은 '흰칠한 선비를 보고도 잠자리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된다(성현, 1997: 128~130).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인 수령

20)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분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내부와 외부의 경계 설정을 넘어서는 것, 이미 체계 안에 들어와 있으나 체계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성을 가리켜 '구성적 외부'라고 했는데, 주디스 버틀러는 이를 전유하여 어떤 범주를 구성하는 것의 외부에 있지만 범주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구성적 외부'로 명명한 바 있다(버틀러, 2003; 조현준, 2007).

윤씨는 딸들이 문무백관이 모여드는 거리로 구경을 나가려 하자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정절이 있는 여자만 뽑을 수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정절을 지키던 여자가 뽑지 못하여 그 연유를 알아보니 어떤 남성의 외모를 보고 사모하여 잊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구성된다.

결혼을 한 사대부가의 여성에 대한 시선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대부가 여성으로 왕실가의 일원이었다가 풍속을 어지럽힌 문란한 여성으로 처벌받았던 어우동의 이야기는 짐짓 다른 뉘앙스를 드러낸다. 어우동은 〈용재총화〉의 서술 속에서 시종일관 ‘행동이 방자하고’, ‘음탕하며’, ‘문란한’ 여성으로 기술된다(성현, 1997: 143-145). 어우동은 여러 명의 사대부가 남성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서술되는데 이 ‘여성’과 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질책과 비난은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어우동의 이야기에서 조금 다르게 읽히는 부분은 그에 관한 서술이 천편일률적으로 비난과 처벌에 있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동경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기 때문이다.

어우동의 이야기에 잇달아 김씨 성을 가진 선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비는 성적 행위 경험이 없는 기생을 억지로 취하려다 이 기생이 도망을 가자 끝까지 뒤따라가 결국에는 이 기생과 인연을 맺게 된다. 사건이 전개될수록 기생 역시 선비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야기 말미에 이 기생은 선비의 아내가 죽은 후 정실부인이 된다(성현, 1997: 145-149). 김선비는 어우동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탐닉하고 몰두하는 인물로 그려졌지만, 그는 어우동과는 전혀 다른 결말에 이르렀다. 기생을 향한 그의 욕망과 집착은 ‘방자함’이나 ‘음탕함’으로 그려지지 않으며 성에 대한 탐닉 또한 ‘문란함’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모든 행동은 ‘순수한 열정’처럼 기술되며 그 결과 행복한 결실을 맺는 것으로 그려진다.

‘남성’ 섹슈얼리티의 규율 권력에 따라 ‘여성’ 섹슈얼리티가 배분될 때

‘과부’나 ‘기생’은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성에 대상으로 그려진다. 과부의 몸은 특정 남성의 ‘영토’였으나 지금은 소유자가 없어 재탈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생의 몸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공용의 ‘영토’이기에 언제든지 탈탈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수원 기생이 수청을 거절하였다는 죄로 볼기를 맞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우동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여 죄를 얻었고 나는 음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얻었으니 조정의 법이 어찌 이처럼 같지 아니한가’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옳은 말이라 하였다”(성현, 1997: 160-161)는 기술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분할적으로 통제하는 규범적 가치가 모순적인 것임을 폭로하는 태도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장군이 있었는데 젊고 흰칠하여 풍채가 옥과 같았다. 그가 하루는 말을 타고 큰길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스물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계집종 두어 명을 거느리고 장님에게 점을치고 있었다. -중략- ‘아무개의 딸인데 요사이 과부가 된 집이올시다’ 하였다. 그 뒤부터는 장군이 오가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과부가 사는 집을 물었다. -중략-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여 잊을 수 없으니 만약 그대로 인하여 성사하게 되면 생사를 그대의 명령대로 하겠소이다’ 하였다. -중략- 주인 여자가 들어왔는데 계집종이 물러가자 주인 여자는 적삼을 벗고 낫을 씻고 분을 바르니 얼굴이 옥처럼 깨끗하였다. 장군은 생각하기를 ‘나를 맞으려나 보다’ 하였더니 세수하고 머리를 빗은 뒤 동화소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며 술을 은주전자에 데우기에 장군은 ‘내게 먹이려나 보다’ 생각하고 나가려 하다가 문든 그 소녀의 참문이라고 한 말을 생각하여 적이 앉아 기다렸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창문에 모래를 끼얹는 소리가 나더니 주인 여자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한 거만한 사나이를 맞아들였다. -중략- 술을 마시다가 모자를 벗었는데 늙은 까까중이었다. 장군은 제지하리라 생각하고 방속을 더듬어 긴 노끈 한 움큼을 쥐고 있다가 중이 주인 여자와 함께 누울 때 뛰어 나와 노끈으로 중을 기둥에 묶어놓고 몽둥이로 마구 치니 중

은 한없이 슬프게 부르짖었다. 그런 뒤 장군은 주인 여자와 한 번 즐기고 중에게 말하기를 ‘군중의 새 사람 만난 예를 행하려 하니 네가 장만할 수 있겠느냐’ 하니 중이 ‘명령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새 사람 만난 예의 잔치 도구를 마련해주었다. 그 뒤로 장군은 과부집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과부 역시 장군을 사랑하여 여러 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성현, 1997: 124-126).

위 이야기에서 ‘젊고 어여쁜 과부’는 성애적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대상일 뿐 아니라 다른 ‘남성’의 소유가 아니어서 쉽게 탐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감히’ 중이 이 ‘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대부가 남성을 자극하게 되고 이 중은 쉽게 극복의 대상이 된다. 장군은 승리한 ‘남성’으로서 ‘여성’의 몸을 소유하고 이 ‘여성’은 어떤 의지도, 동기도 드러내지 않은 채 중의 소유였다가 장군의 소유로 ‘이전’된다. 영토화된 ‘여성’ 섹슈얼리티는 지배와 정복의 대상이면서 ‘남성’들끼리의 경합을 부추기는 대상이다. 이 경합은 규범화된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장군과 중 사이의 위계적 위치 차이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중은 패배자로서 장군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장군의 소유가 된 ‘과부’는 ‘장군을 사랑하여 여러 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기술된다. 장군은 주체할 수 없는 성애적 욕망의 대상을 지배하면서도 ‘정상’과 ‘규범’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 ‘여성’의 몸을, 경합을 통해 승리로 생취함으로써 자신의 ‘남성’ 섹슈얼리티를 더욱 과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남성’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용재총화〉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남성’의 ‘왕성한’ 성적 욕망과 이의 실현을 ‘자연’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일이다. ‘여성’은 ‘남성’의 성애적 욕망을 부추기는 대상으로 그려지며 규범화된 ‘남성’ 섹슈얼리티가 설정한 경계 안에서 과잉된 욕망을 부추기지 않는 대상으로 남아 있을 때 안전하고 정상적이며 윤리적인 대상으로 인식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남성'의 성애적 욕망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행위는 '남성'의 '건강한 신체'와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구현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애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향한 적극적 구애와 갈망은 '정상' 범주의 경계 내에서 '기개 있고', '재치있으며',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구현하는 행위로 그려진다.

참관 박이창은 재상 박안신의 아들이다. 젊어서 기개가 있고 말이 익살스러웠다. 강개하고 곧은 말 하는 것은 제 아버지의 풍이었다. -중략 - 일찍이 승지가 되어 임금을 모시고 가는데 길가에서 남녀가 막을 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어떤 여자가 옥 같은 손으로 발을 걷어올려 몸이 반쯤 보이거늘 공이 큰 소리로 '저 섬섬옥수를 이 손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다' 하였다. 동료들이 '저 여자는 분명 양갓집 처녀 같은데 그대는 그런 말을 하느냐' 하자 공은 '저 여자만 양갓집의 처자고 나는 양갓집의 자제가 아니란 말인가' 하여 좌우에 있던 동료들이 크게 웃고 말았다. 그 뛰어난 말솜씨가 이와 같았다(성현, 1997: 98).

사람들이 말하길, '허공은 평생에 음양의 일을 모른다' 하니 공이 웃으면서 '만약 내가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큰아들 후와 둘째아들 눌은 어디에서 났으리오' 하였다. 이때에 주읍의 기생을 없애려는 의논이 있어서 정부대신에게 물었더니 모두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공에게만은 이 말이 미치지 아니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가 맹렬히 반대할 줄 알았다. 공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누가 이런 계책을 내었는가. 남녀 관계는 사람의 본능으로서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읍 기생은 모두 공가의 물건이니 취하여도 무방하나 만약 이 금법을 엄하게 하면 사신으로 나가는 나이 젊은 조정 선비들은 모두 옳지 못하게 사가의 여자를 빼앗게 될 터이니 많은 영웅 준걸이 허물에 빠질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마땅치 않은 줄로 안다' 하여 마침내 공의 뜻을 좇아 전과 다름없이 그냥 두고 고치지 않았다(성현, 1997: 267-268).

위 이야기는 ‘평소 성적 욕망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남성’의 입을 빌어 ‘남성’의 성적 욕망은 억압할 수 없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배설’되고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게 한다. ‘남성’의 성적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이것이 배출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대적으로 ‘성적 욕망이 강하지 않다고 승인된 남성’의 입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적극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사대부가 여성’을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다수의 정상 남성들이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생들을 두고 기생들의 ‘몸’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통해 ‘남성’ 섹슈얼리티의 정상 경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성적 욕망 배설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²¹⁾ 예를 들어 사대부 관료 남성들이 경연에 앞서 임금을 기다리는 시간에 사담을 나누면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는 하룻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들은 임금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성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야기에 참여한다. 그리고 즐겁게 이 경험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유대를 강화한다. 시종일관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이들은 서로의 ‘남성다움’을 상찬하는 시를 지어 나누는데, 궁궐 안 임금을 기다리는 공적 장소에서 이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허물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자다운 호기로우움’을 드러내고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 인식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성현, 1997: 281-285).

21) 안율보의 이야기에서 안율보는 술을 마시고 판서 홍윤성이 아끼는 여인을 마음대로 탐하려다 그의 적삼 소매자락을 찢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 일을 반성하고 사과한 안율보는 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홍윤성은 관대하게 웃으며 “안공의 풍정의 질세의 무쌍이로다.”라는 말로 그의 실수를 포용한다(성현, 1997: 269-270). 이 이야기를 통해 안율보와 홍윤성은 모두 ‘남자다운 기개와 그릇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성적 욕망이 없거나, 성적 쾌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를 부정하거나, 성적 행위에 관한 인지를 ‘정상’ 범위 수준으로 갖지 못한 ‘남성’은 모자라고 결핍된 존재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남성’ 역시 ‘비-남성’으로서 ‘남성’ 섹슈얼리티의 외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서술의 문면에서는 조롱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음식과 남녀의 교정은 사람들의 큰 욕망인데도 지금 색을 모르는 사람이 셋 있다. 제안대군은 무한히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으며 항상 말하기를 ‘부너지는 더러워서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여 마침내 부인과 마주앉지 않았다. 생원 한경기는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손자인데, 마음을 닦고 성품을 다스린다는 구실로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일찍이 그 아내와 서로 말한 일이 없었으며 만약 계집종의 소리라도 들리면 막대기를 들고 내쫓았다. 김서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리석어서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하였고 또한 음양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김서는 그 후사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 일을 아는 여자를 단장시켜 함께 자게 하고 운우를 가르치려 하니, 그 아들은 놀래어 상 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 뒤에는 붉게 단장하고 족두리한 여자만 보면 울면서 달아났다(성현, 1997: 50).

몇몇 연구자들은 승려들의 ‘성적 욕망’이 이와 같이 그려지는 대목들을 예로 들어 〈용재총화〉에서 성현이 불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이은희, 2015; 임명걸, 2011; 박상란, 2008) 사실상 이때 ‘승려’, 곧 ‘중’은 결핍된 ‘남성’ 섹슈얼리티-과잉되거나 모자라는 방식으로-를 표상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용재총화〉의 여러 이야기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은 대체로 긍정되지만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 정상 범위를 넘어선 ‘남성’ 섹슈얼리티로 규정되어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어떤 중이 과부를 띄어 장가들러 가는 날 저녁에 상좌가 속여 말하기를 ‘가루 양념과 생콩을 물에 타서 마시면 양기에 매우 좋습니다’ 하니 중이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마시고 과부집에 갔다. -중략- 중이 땅에 엎어지며 설사를 하여 구린내가 가득 찼으므로 과부는 매를 때려 내 쫓았다. -중략- 중이 옷이 모두 젖은 채 다리 하나를 지나가는데 아낙네 두어 명이 시냇가에서 쌀을 일고 있었다. 중이 ‘시름시름하구나’ 하였는데 대개 이 말은 오는 길에 낭패하고 수고함을 형용함이다. 아낙네들은 그 까닭을 모르고 모두 와서 길을 막으며 ‘술 담글 쌀을 이는데 어찌 시름시름하라는 말을 해요’ 하고 옷을 다 찢고 중을 때려주었다. -중략- 중이 다리 옆에 누워 있었는데 순찰관 두어 명이 다리를 지나가다가 보고 ‘다리 옆에 죽은 중이 있으니 몽둥이질하는 연습을 하자’ 하고 다투어 몽둥이를 가지고 연달아 매질하였다. 중은 무서워서 숨도 쉬지 못하다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다가오며 말하기를 ‘죽은 중의 양근(陽根)이 약에 쓰일 것이니 잘라서 쓰자’ 하므로 크게 소리지르며 달아나서 저물녘에야 절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었다(성현, 1997: 120-122).

어떤 유생이 밤늦게 총총히 가는 중을 보고, ‘어디를 가오’ 하니 중이 말하기를 ‘여승의 암자에 가서 그것님(陽根)의 집을 찾으려 하네’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그것의 집을 찾는다는 말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성현, 1997: 192).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결핍된 ‘남성’ 섹슈얼리티를 표상하는 또다른 존재는 ‘장님’이다. 명통사(明通寺)의 장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한 서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을 골탕먹이기 위해 장님이 치는 종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장난을 하다 장님에게 호되게 맞았는데 나중에 이 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변소에 숨어 있다가 장님의 음경에 줄을 매달아 당기는 일을 저질렀다. 이 이야기는 동료 장님을 위해 앞다투어 몰려든 장님들이 ‘변소 귀신에게 화를 입었다고’ 외치며 주문을 외우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것으로

마무리된다(성현, 1997: 133-134). 잇달아 기술된 다른 장님 이야기에서는 아내가 있는 장님이 또다른 절세 미녀를 탐하여 취하려다가 아내에게 호되게 혼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과도한 성적 욕망을 갖고 이를 실현하려다 부끄럽게도 '여성'에게 망신을 당하는 인물로 그려진다(성현, 1997: 134-135).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경증적 징후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도 있다. 재상이 여승과 정을 통한 후 정한 약속에도 나타나지 않아 여승이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 여승이 구렁이가 되어 결국 이를 함 속에 넣어 다니던 재상도 죽고 말았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재상은 자신의 일방적인 성애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여승'의 몸을 취하고 무의미한 약속을 남겨 결국 원념의 덩어리인 구렁이를 만들고 말았다. 구렁이는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크게 자랐는데 재상은 이것을 곁에 두고 지나다 결국 병들어 죽고 말았다. 구렁이로 표상된 원념(怨念)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남성' 섹슈얼리티에 의해 대상화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남성' 섹슈얼리티의 지배와 통제를 넘어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짧고 어여쁜 여승'은 억제할 수 없는 성애적 욕망의 대상이며, 여승의 성적 매력은 필연적으로 '남성'의 '과잉'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서술된다. 억제할 수 없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과잉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짧고 어여쁜 여승'은 필연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나, 역설적이게도 이 대상은 결코 억제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 이야기에 개입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경증에 '죄'와 '불안'의 감각이 함께 깃들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홍재상이 아직 입신출세하지 못한 때였다. 길을 가다 비를 만나 조그만 굴 속으로 달려들어갔더니 그 굴 속에는 집이 있고 열일고여덟 살

쭈뼌의 모습이 어여쁜 여승이 홀로 앉아 있었다. 공이 ‘어째서 홀로 앉아 있느냐’ 물으니, 여승은 ‘세 여승과 같이 있사온데 두 여승은 양식을 빌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공은 마침내 그 여승과 정을 통하고 약속하기를 ‘아무 달 아무 날에 그대를 맞아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여승은 이 말만 믿고 매양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날이 지나가도 나타나지 않자 마음에 병이 되어 죽었다. -중략- 뱀이 다시 방에 들어오므로 비로소 전에 약속했던 여승이 빌미가 된 것인가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 위엄만 믿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명하여 죽여버리게 하였더니 이 뒤로는 매일 오지 않은 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올 때마다 몸뚱이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큰 구렁이가 되었다. -다투어 찍어버리거나 장작불을 사면에 질러놓고 보기만 하면 다투어 불 속에 집어 던졌으나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에 공은 밤이 되면 구렁이를 함 속에 넣어 방안에 두고 낮에도 함 속에 넣어 두고, 변방을 순행할 때도 사람을 시켜 함을 짊어지고 앞서가게 하였으나 정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얼굴빛도 파리해지더니 마침내 병들어 죽었다(성현, 1997: 98-100).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경증을 징후적으로 예고하는 이야기들에서 두드러진 것은 ‘여성의 빼어난 미모’다. 이들 이야기에서 ‘여성’은, 아니 더 정확하게 ‘여성’의 몸은 불가항력적으로 ‘남성’의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위험스러운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여성’ 섹슈얼리티는 ‘남성’ 섹슈얼리티를 규범 경계 바깥으로 튕겨 나가게 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기에 극단적 갈망과 배격을 오가는 양가적(兩價的, ambivalence) 태도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안생(安生)의 이야기에서 안생은 신분의 차이를 무릅쓰고 정승의 집에 소속된 계집종의 매력에 이끌려 정승의 허락없이 인연을 맺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여인은 궁으로 끌려가 간히고 급기야 강제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아내를 잊지 못한 안생은 그녀의 혼백을 만나게 되고 급기야 비정상적 심리 상

태에 돌입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정승의 계집종은 '매우 젊고 아름다우며 얼굴과 태도가 모두 고운' 것으로 그려진다. 안생은 그녀에게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며 급기야 신분의 위계를 뛰어넘어 규율을 어기고 관습을 거스르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 그의 삶은 스스로 붕괴되는 국면에 도달하고 만다. 정승의 계집종은 '남성'으로 하여금 위반과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할 만큼 치명적 매력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며 이 때문에 '남성' 섹슈얼리티를 위협할 만한 대상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이 '여성'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품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며, '남성'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다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또다른 욕망을 충족시키는 로망을 선사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이상적인 성애적 대상이 심지어 특정 대상의 '남성'만을 바라보며 지고지순한 단심(丹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생의 아내는 위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극한 동경의 대상이 되는, '남성'의 판타지적 성애 로망을 완성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이상(理想)을 보여준다(성현, 1997: 130-133).

〈용재총화〉에서도 '여성'들은 '남성'의 성애적 대상으로서의 '몸'으로 치환되어 있으며, 서사적으로 초점화된 것은 오로지 '남성'의 행위 동기와 감정일 뿐 '여성'의 행위 동기나 내면은 거의 초점화되지 않는다. 아래 이야기는 '여성'이 '몸'으로 치환되어 '남성'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교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두 '남성' 인물의 발화가 오가는 중에도 '여성'은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으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것도 표현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남성'이며, 이 '남성'들은 '여성'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간에 우애를 쌓고 친밀감을 나눈다. '여성 교환'을 통해 '남성 연대'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폭력적인 상황들이 여기서는 두 '남성'의 호방한 기개와 세사(世事)에 얽매이지 않는 기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

주는 ‘미담(美談)’으로 기술된다.

절 앞에 사는 늙은이에게 젊은 아내가 있어 중이 그 여자와 더불어 상통하였다. 늙은이가 집안이 어려워서 중의 덕을 입고자 하여 아내를 거느리고 절에 와서 붙어 살았으며 중도 또한 늙은이를 사랑하여 의식을 많이 주었다. 세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자되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여 사내아이 하나와 계집애 하나를 낳았는데 중은 ‘노인의 자식이다’ 하니, 노인은 또한 ‘화상의 자식이다’ 하였다. 중이 절에 있으면 노인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밭에서 채소를 가꾸었으며 중이 만약 길을 떠나면 노인이 짐을 지고 그의 종이 되고 하였다. 절에서 산 지 몇 해 만에 아내가 죽었는데 오히려 중을 따라 살았으니 그 정분이 형제와 같았다. 노인이 죽으니 중이 엷고 가서 장사를 지내주었다(성현, 1997: 16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재총화>에 기술된 여러 서사들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우선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분할적 통제와 지배를 둘러싼 규율 권력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남성’ 성욕의 자연화 및 성적 폭력의 정당화를 통해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화 또한 공고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 및 역량의 결핍과 과잉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로 인한 신경증이 나타나며, ‘여성’ 섹슈얼리티의 교환과 통제를 통한 호모소셜의 유대 강화 장면도 엿볼 수 있다.

4. ‘남성’ 섹슈얼리티의 수행 공간으로서의 호모소셜 커뮤니티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아이덴티티를 수행적 개념으로 기술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본질화하거나 영토화하지 않고 사회

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춰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²²⁾ ‘남성’ 섹슈얼리티를 수행성(performativity)의 개념으로 포착할 때 주목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수행되는 담론 공간이다. 과거 전통 사회로부터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남성’ 섹슈얼리티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담론장은 호모소셜을 기반으로 구축된다.²³⁾

‘여성’ 섹슈얼리티는 호모소셜에 기반한 담론 공간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를 수행하는 권력 지형 안에서 재배치된다. ‘남성’ 섹슈얼리티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그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모든 매체는 매체 특성과 조건에 부합하는 담론장의 규약과 관습을 구축한다. 앞서 살펴본 구술서사 연행과 전승의 공간이나 <용재총화(慵齋叢話)>와 같은 필기류 텍스트를 향유하는 공간 역시 서로 다

22) 버틀러는 모든 발화가 사실상 수행의 효과를 드러낸다는 오스틴(John Langshaw Austin)의 주장(오스틴, 1992)을 정체성 논의로 끌어들이며, ‘여성’은 ‘되는(are)’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젠더정체성을 ‘행하는(do)’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행성(performativity)’으로 젠더정체성의 개념을 드러내고자 했다(버틀러, 2003; 조현준, 2007; Butler, 1990). 여기엔 젠더정체성이 가변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이라는 사실, 그리고 젠더 주체가 젠더정체성의 수행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정체성을 수행하는 행위의 효과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버틀러는 젠더정체성의 ‘수행성’을 특정 개인의 행위, 혹은 수행에 결부시키지 않고 매트릭스(matrix)라는 틀로 설명한다(조현준, 2007; Butler, 1990). 매트릭스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허구적 가설물이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규정되는 틀이며, 정교하게 짜여서 내부에서는 인공적인 구성물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물이다. 젠더정체성의 매트릭스는 젠더정체성이 수행되는 틀이자 담론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젠더정체성은 이와 같은 매트릭스를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으며 매트릭스의 구조 안에서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3) “여성과 성을 매개체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남성동성사회다. 군대나 회사와 같은 남성동성사회는 대단히 예로틱한 공간이며 몸을 통해서 서로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공간이다. (중략) 성과 여성은 이 동성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인 셈이다”(엄기호, 2014: 370-371).

른 관습과 규범에 의존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공간에서부터 오늘날의 온라인 호모소셜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지속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들 공간이 모두 ‘여성’ 섹슈얼리티를 대상화하고 지배하는 방식, 혹은 ‘남성’ 섹슈얼리티를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되고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주목할 또 하나의 요소는 이들 호모소셜 담론장이 ‘사이’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담론장은 완전히 공적 영역도 아니고 완전히 사적 영역도 아닌 ‘사이’의 영역에 존재한다. 이 영역에서 강조되는 것은 호모소셜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있는 내밀한 문화적 관습과 코드를 공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²⁴⁾ 물론 이 담론장 안에서 담론자원²⁵⁾은 호모소셜 내부의 위계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24) 대화나 담화 국면에 전제된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적 맥락’이나 ‘공유된 이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다. 헤럴드 가펩클(Herold Garfinkel)의 ‘일상 생활 방법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의미 통하기(making sense)’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대화 중에 이야기되는 바의 뜻이 통하기 위해서는 단어 자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대화가 갖는 의미의 일부는 단어들 자체에 있지만 의미의 다른 일부는 대화로부터 사회적 맥락이 발현되는 방식에서 찾아진다. 또한 가장 비논리적인 형태의 일상 대화도 복잡한 공유 지식을 대화 당사자들이 대화 과정에 투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정확한 의미를 결여하고 있기에 ‘공유된 이해’ 없이는 해석과 소통이 불가능하다(기든스, 1992: 111-113).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된 이해’의 외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공유 유무에 따라 의사소통 커뮤니티에서의 위치가 달라진다. 구술 연행 및 소통 이론에 정통한 이들은 이를 ‘특수 코드’의 공유 여부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리차드 바우만은 의사소통의 7가지 핵심 요소로 ‘특수 코드(special code, 특별한 표현이나 용어, 속담, 고사성어, 시적 용어 등)’, ‘수사어구(figurative language)’, ‘대응구(parallelism)’, ‘비발화적 요소(special paralinguistic features)’, ‘특수 정형구(special formulae)’, ‘전통에의 호소(appeal to tradition)’, ‘연행에 대한 거부(disclaimer of performance)’ 등을 거론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특수 코드의 공유 여부를 소통 경계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하였다(Bauman, 1984: 7~14, 15~24).

25)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는 담론장 내의 비공식적 배제에 주목하면서 담론자원

이 호모소셜의 담론장은 '비-남성'을 배타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남성'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만들고 이 '남성' 섹슈얼리티를 신화화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를 고양시켜 나간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는 호모소셜리티가 구성되는 과정을 '비-남성'의 배제 역동으로 설명한 바 있다(우에노, 2012). '정상/표준 남성'에서 배제되는 것들을 외부로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때로는 극단적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담론 전략을 통해 호모소셜리티를 구성하고 결속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극단적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물화된 '여성의 몸'으로 치환된 상태에서 극단적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행위를 호모소셜을 향해 전시하고 이를 인정투쟁하는 과정을 통해 '남성' 주체가 호모소셜 내 자신의 위치를 획득하는 장면도 흔히 목격된다. 물화된 '여성' 섹슈얼리티는 교환 대상이자 성적 지배의 대상으로 점유되는 과정을 통해 '호모소셜'의 경계를 만들고 그 내부 유대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서사들에서 '남성' 섹슈얼리티가 신화적으로 구축되는 양태의 핵심 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남성 페니스, 남성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등을 극단적으로 신화화하고 이를 통해 성적 폭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
- 2) 젠더 규범과 젠더 정치의 영역 내에서 '비-남성(not-male)'으로 규정된 것들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규범화된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식.

(discursive resources)의 비대칭적 불균형이 이와 같은 배제를 만든다고 설명한다(사이토, 2009: 31~34). 담론자원은 담론장 내의 권력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화권, 말하기 태도와 기법, 사회적 관계망,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치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내적으로 공유된 코드의 공유 여부는 담론자원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성에 남성의 욕망을 물신화하는 사회에서 섹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너무 절대적인 것이 되기 마련”이라는 지적을 상기할 때(권김현영 외, 2018: 54) 성적 폭력의 정당화에 결부된 1번 항목들의 내용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적 폭력의 서사에서 피해자는 끝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는 반면 가해자는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바로 ‘남성’이 가해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 ‘남성’의 행위가 폭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것이어서 입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조차 없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권김현영 외, 2018).²⁶⁾ 바로 이 때문에 이와 같은 관념을 떠받치는 담론의 전통, 담론장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적 폭력을 실현하는 권력과, 이를 정당화할 필요조차 없이 자연화·신화화하는 담론 권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면서 이것을 폭력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담론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성적 농담의 수사적 전략’, 다시 말해 ‘웃음의 코드’다. 성적 폭력의 서사에 직면하여 이를 하나의 웃음거리이자 농담거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누군가는 호모소셜 외부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적 폭력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서

26) 성적 폭력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가해의 위치에 놓거나 피해의 위치에 놓는 것보다, 가해와 피해를 가르고 이들의 위치를 정하고 또 이 배분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권력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권김현영 외, 2018). “강간 문화란 남성에게 성적 공격성을 장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며 성적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normalize) 일련의 신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년 문화에서 강간은 정상적인 소년이라면 흔히 겪는 성장담으로 격려되어 왔다. (중략) 강간 문화에서는 폭력 자체가 섹시한 것으로 취급되고, 성폭력은 섹스라는 모험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작은 실수로 사소화된다. 불특정 다수가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향유하는 강간 문화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놀이 문화로 승인된다. 강간 문화는 강간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퍼뜨리며, 섹스와 강간을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만든다”(권김현영 외, 2018: 57-59).

술 전략은 심리적으로는 '남성' 섹슈얼리티가 야기하는 신경증을 회피하고 불안을 방어하는 기제가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호모소셜의 경계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팅의 기능을 한다. 누가 호모소셜의 내부에 있는 자이고 누가 외부로 내쳐져야 하는 자인지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모소셜의 일원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웃음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호모소셜을 향해 전시되어야 하며, 호모소셜의 승인과 인정을 통해 '웃음에의 동참'은 최종적인 사회적 성취를 획득하게 된다.

“웃음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적인 행위이며, 발화된 농담은 권력관계를 전제한다. 하나의 농담이 농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화자와 수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김학준, 2017)는 지적처럼 성적 폭력의 서사가 지시하는 내용보다 더 핵심적이고 이들 서사에 더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은 웃음의 코드다. 호모소셜 내부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은 성적 폭력의 내용이나 구체적 규범 자체보다 어찌면 성적 폭력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전시하고 이를 승인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웃음의 코드, 성적 농담의 전략은 오늘날 다양한 호모소셜 미디어 커뮤니티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 이와 같은 전략이 오랜 세월 유효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웃음에 동참하지 않을 때 호모소셜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위협이 실질적인 공포와 불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화를 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이를 향유하는 커뮤니티 내부의 역동과 조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호모소셜의 정동이 지속되는 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화는 극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의 형태로 존재한다.

5. 나오며

“성은 권력이 통괄하려 드는 일종의 자연적 소여라거나 얇이 점차 벗겨내고야 말 모호함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구성물에 부여될 수 있는 이름이다”(웁스, 1997: 31²⁷⁾).

섹슈얼리티의 계보학적 탐색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이 글의 서술 목적에 대해서도 어떤 암시를 준다. “‘저항으로서의 계보학’은 ‘미약한 하위의 역사에 놓은 주변적이고 은폐적인 목소리’에게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역사를 이용한다”(페이트만·웨인리, 2004)는 말은 ‘남성’ 섹슈얼리티를 자연화·정당화하는 주류 담론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왜 굳이 변화가 아닌 지속을 증명하기 위해 ‘남성’ 섹슈얼리티의 서사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는지 설명해준다. 오늘날 한국 사회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화를 비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해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지만 젠더 정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이 제도에 결부된 담론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과거의 신화에 머물러 있다.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를 호모소셜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호모소셜의 문화적 내용과 관습, 상호작용과 결속 방식 등은 다소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계보와 권력 구조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호모소셜 내부의 규약과 문화적 관습은 달라지더라도 호모소셜이 ‘여성’ 섹슈얼리티를 대상화하고 이를 통해 ‘남성’ 섹슈얼리티를 구축하는 동시에 방어하는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 ‘남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서사 향유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호모소셜의 경계 구성에 관여한다고 할 때 이 경계 안에 포함되는

27) Rubin(1984: 285)에서 재인용.

나 배제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상 정치의 영역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 정체성을 수행하는 개별 주체는 호모소셜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때때로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 젠더 폭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게 된다. 호모소셜을 향한 인정 투쟁은 사회화 과정에서 점차 강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모소셜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극도의 심리적 강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적 농담의 수사적 전략이 요구된다. ‘남성’ 섹슈얼리티를 신화화하는 서사의 향유와 전송은 호모소셜을 결속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구성하며 ‘남성’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규범과 정동, 젠더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데, 이를 촉진하고 조건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적 농담의 ‘웃음’ 전략이다. 모두가 웃을 때 웃지 않는 자는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배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각인되어 있다.

또한 성적 폭력을 말하는 것을 일종의 ‘농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을 방어하고 회피하는 기제가 될 수 있으며, ‘남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규범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불안 또한 방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남성’ 섹슈얼리티의 결핍과 과잉,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범과 이 규범을 제시하는 처벌의 서사들은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일종의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심리적 방어 기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젠더 정치 기제를 떠받치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남성’의 성적 욕망은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순치되지 않은 ‘남성’ 섹슈얼리티를 경계 바깥에 두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를 경계 안으로 순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어떤 ‘성적 폭력’들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념이다. 이와 같은 폭력이 일종의 안전판으로써 일정 수준으로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며 ‘남성’ 섹슈얼리티를 ‘정상’ 범주 안에 묶어두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관념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미 폭발 직전의 균열과 동요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불안과 위협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순간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남성' 섹슈얼리티를 자연화하고 신화화하는 담론 전략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성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담론 기제 또한 여전히 다양한 헤게모니 도구들을 통해 지탱되고 있다.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의 서사적 계보를 탐색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르러 '극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담론장의 '현재'를 좀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성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김현영(2018),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루인·정희진 외 지음, 서울: 교양인, 22-71쪽.
- _____. 루인·정희진 외(2018),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서울: 교양인.
- 기든스, 앤서니(1992), 『현대 사회학』, 김미숙·김용학·박길성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 Giddens, A.(1990),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김시연(2019), “구술 서사에 나타난 페니스의 절대화와 신화화-구전이야기 ‘처녀 병 고친 소금장수’와 ‘첫날밤에 신랑 재촉한 신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53집, 44-94쪽.
- 김영희(2013), “‘유혹하는 여성의 몸’과 남성 주체의 우울-비극적 구전서사 <달래나 보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51집, 75-117쪽.
- 김학준(2017), “웃음과 폭력”, 『그런 남자는 없다』,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엮음, 서울: 오월의봄, 280-300쪽.
- 뤼트케, 알프 엮음(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이동기·나종석·문수현 외 옮김,

- 서울: 청년사, 472-473쪽, Lüdtke, A.(ed.)(1989),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엮음(2001),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1, 서울: 태학사.
- 박상란(2008), “조선시대 문헌설화에 나타난 불승의 존재방식과 속화현상-『용재총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8권, 279-319쪽.
- 버틀러, 주디스(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김윤상 옮김, 고양: 인간사랑, Butler, J.(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 파주: 문학동네,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사이토 준이치(2009),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서울: 이음, 齋藤純一 (2000), *公共性: 思考のフロンティア*, 東京: 岩波書店.
- 성현(1997), 〈용재총화(慵齋叢話)〉, 민족문화추진회 엮음, 서울: 솔출판사.
- 아감벤, 조르조(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벗겨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서울: 새물결, Agamben, G.(1998), trans. D. Heller-Roaz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엄기호(2014), “남성성의 위기와 한국의 남성문화”,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파주: 동녘, 363-390쪽.
- 오스틴, 존 랑쇼(1992), 『말과 행위-오스틴의 언어 철학, 의미론, 화용론』, 김영진 옮김, 서울: 서광사, Austin J. L.(1976), *How to Do Things with Words*,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우에노, 치즈코(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서울: 은행나무, 上野千鶴子(2010), *女ぎらい——ニッポンのミソジニ- (單行本(ソフトカバー)) ニッポンのミソジニ-*, 東京: 紀伊國屋書店.
- 윤해동(2010),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사이間

- SAI』, 제8권 8호, 184-188쪽.
- 웍스, 제프리(1997),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채규형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Weeks, J.(1986), *Sexua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이은희(2015), “〈용재총화〉에 나타난 성담론 연구”, 『한어문교육』, 제34권, 145-179쪽.
- 이인경(2008), 『〈韓國口碑文學大系〉 소재 설화 해제』, 서울: 민속원.
- 임명걸(2011), 「〈용재총화〉 소재 소화의 연구」, 『한문학보』, 제25권, 211-237쪽.
- 임옥희(2008), 『주디스 버틀러 읽기: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서울: 여이연.
- 조현준(2007),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이론: 퀴어 정치학과 A. 카터의 『씨커스의 밤』』, 서울: 한국학술정보.
- 페이트만, 캐럴·메어리 린든 웨인리 위음(2004), 『페미니즘 정치사상사』, 이남식·이현애 옮김, 서울: 이후, Pateman, C. and M. L. Shanley(eds.)(1991), *Feminist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Theory*,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푸코, 미셸(1990),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출판, Foucault, M.(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I: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 _____ (1990),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문경자·신은영 옮김, 서울: 나남출판, Foucault, M.(1984), *Histoire De La Sexualité II: L'Usage Des Plaisirs*, Paris: Gallimard.
- _____ (1990), 『성의 역사 3: 자기에의 배려』, 이혜숙·이영목 옮김, 서울: 나남출판, Foucault, M.(1984), *Histoire De La Sexualité III: Le Souci De Soi*, Paris: Gallimard.
- 한국고소설학회 위음(2009),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 서울: 보고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1979~1988), 『한국구비문학대계』, 1-82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 Bauman, R.(1984), “The Nature of Performance”, in *Verbal Art as Performance*, Long Grove: Waveland Press, pp. 7-14.
-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Rubin, G.(1984),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Boston a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267-319.

(논문 투고일: 2019.10.31, 심사 확정일: 2019.11.28, 게재 확정일: 2019.12.27)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Genealogy of Male Sexuality Mythology in Korean Oral Narratives

Kim, Young Hee*

This essay is a critical study on the mythology of male sexuality. In many oral narratives of Korea, various strategies which justify male sexual violence and naturalize male sexual desire are presented. In some oral narratives, the symbolic male penis is interpreted as having a magical power to solve all kinds of problems, such as women's diseases and female inability to experience sexual pleasure. However, in these stories the penis is inserted to female body violently. At the core of this mythic mechanism is the quotidian discourse of the semi-public space, which acts as a platform for gender norms and gender identity in the intersecting public and private domains.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narrative framework that acts as a key mechanism in this discourse domain, investigating various fields. These narratives are mostly performed by males in homosocial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omposition and enjoyment of these stories is a process by which individual 'male' subjects acquire 'homosocial' approval. And these stories are in most cases considered as sexual jokes. As a result, the sexual violence by males avoids ethical responsibility and criticism. The main points of interest are the *Yong-Jae-Chong-Wwa*(慵齋叢話) of *Sung Hyun*(成俔, 1439-1504) and oral narratives written in the 20th century. In some stories of the text, the female images are presented only as objects of male sexual desire. And 'not-male' factors constitute the outside of normal masculinity. 'Not-male' factors become the objects of the sexual jokes. The over and under of normal masculinity are ridiculed by in the homosocial community. It is also important to join in the laughing at of 'not-male' for every male of homosocial community.

key words: male, sexuality, oral narrative, homosocial, *Yong-Jae-Chong-Wwa*(慵齋叢話)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